

‘도쿠젠지 절 가라몬·가야몬’

도쿠젠지 절 가라몬

이 문은 일찍이 나라(奈良) 근교의 선종 사원(좌선을 기본 수행으로 하는 절)인 도쿠젠지 절의 일부였습니다. 도쿠젠지 절은 1632년에 우라쿠의 형이자 오다 노부나가(織田高長, 1590-1674)가 오다 가문을 위해 창건한 사찰입니다. 시간이 지나 도쿠젠지 절은 폐허가 되었고, 메이지 시대(1868-1912)에 들어서자 이 문만 남았습니다. 이후 1941년에 미쓰이 가문이 매입했습니다.

문 천장에는 모란이 조각되어 있고, 문짝에는 특이한 이랑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. 이 문은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, 그 소재와 형상이 고상하고 고귀한 느낌을 줍니다.

이와스몬과 마찬가지로 이 위엄있는 목조 문도 가라몬입니다.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카이카라몬이라고 하는데, 지붕이 넓고 범종 모양의 박공이 있으며, 그 중앙의 능선이 문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
가야몬

이 소박한 문은 우라쿠엔의 다른 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. 기둥은 나무줄기를 거칠게 가공한 것이며, 지붕은 노송나무 껍질이 아니라 띠로 이어져 있습니다. 문미(문 위에 가로 댄 나무)가 낮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합니다.

이 문의 소박한 구조와 낮은 입구는 센리큐(1522-1591)가 확립한 와비사비(일본의 전통 미의식 중 하나)를 잘 보여줍니다. 실제로 가야몬은 센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문을 재현한 것입니다. 이 문은 리큐에서 파생된 오모테센 가문의 다인이었던 미쓰이 다카미네(三井高棟, 1857-1948)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.

큰 나무문을 연 상태에서는 알 수 없지만, 이 문에는 ‘구구리도(潜戸)’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작은 문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. 정면 문을 닫으면 이 작은 문이 열리는데, 손님은 더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 구구리도는 다회(茶會, 차모임) 때 손님이 정숙한 다른 세계에 왔음을 느끼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됩니다.